

<3장>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호소

1) 바울의 4가지 질문(2-5절)

-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?(2)

: 그들은 그림처럼 생생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결과로 성령 받았다.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(요 3:5)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다.(약 1:18; 벧전 1:23)

-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?(3)

: 복음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어 완성을 이루려는 노력을 말한다. 율법 아래서는 성령께서 성화의 사역을 하실 수 없다.

-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?(4)

: 사도들과 새신자들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과 그리스도인들로서 받았던 핍박을 말한다.

-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어디로부터냐?(5)

: 초자연적인 역사가 율법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았다.(행 14:8-11)

2) 아브라함의 예(6-9절)

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?(창 15:6; 17:24) 무엇을 믿는가? 복음의 약속을 믿는다.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다. 하나님께서 이방인과도 믿음에 근거하여 올바른 관계를 맺으실 것을 성경이 말한다. 결론적으로 모든 이방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다.(창 12:3)

3) 율법의 저주(10-14절)

율법 일부분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.(신 27:26)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근거가 율법 준수에 있지 않았다.(합 2:4)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해방(속량)하셨다. 우리의 죄와 저주는 예수님께 전가되고, 예수님의 의와 복과 성령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.

4) 율법과 약속(15-18절)

유언장은 임의로 폐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듯이 약속도 바꿀 수 없다.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영원히 유효하다.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며(창 12:7; 13:15; 24:7) 첫 언약의 약속들에 대한 참된 상속인이다.(마 1:1) 율법은 약속보다 430년 후에 주어졌다. 그 기간동안 족장들을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축복하셨다. 율법이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바꿀 수 없다.

5) 율법의 목적(19-22절)

- 범법하므로 더하여진 것: 죄를 억제하는 역할, 우리는 죄의 포로
-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
 - : 우리의 문제를 보여주고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음을 입증
-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
 - : 율법은 하나님과의 직접 교제가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받는, 복에 관한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

*율법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음을 알림

6) 율법의 역할(23-25절)

- 초등교사: 엄격한 여종, 부모를 대신하여 6-7살 난 아들을 사춘기까지 맡아 사회의 악으로부터 보호하며 도덕적 훈련을 시킨다.
- *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다기 보다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미성숙한 우리의 훈계자 역할을 하였다. 율법과 우리의 관계는 친밀하거나 인격적이지 못하며 상벌에 기초한다.

7) 그리스도인의 지위(26-29절)

- 하나님의 아들: 장성한 아들은 더이상 초등교사(종) 아래 있지 않음, 법적 상속자
- 그리스도의 옷 입음: 우리의 정체성, 친밀함, 변화, 수치를 가리심
-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: 문화, 계급, 성별의 장벽을 넘는 연합
- 아브라함의 자손: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양자, 언약의 약속에 따른 상속자